

에너지소비절약대책회의 에너지절약 기자재생산 지원확대

쑤다환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과 에너지다소비업체, 협회 및 단체대표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력자원부는 GNP단위당 에너지소비를 나타내는 에너지투입비중이 80년을 100으로 할때, 86년에는 88.1로 떨어져 지난 6년간 에너지이용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86년의 에너지 수입액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등에 힘입어 85년보다 약 15억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에너지절약에 의한 수입감소액은 2억 2천만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동자부는 에너지원단위 감축과 에너지절약투자지원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에너지관리 우수업체와 개선대상업체로 구분, 각기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에너지사용기기의 성능향상 및 검사강화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상공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추진보고를 통해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축소조정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육성으로 에너지저소비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에너지절약형전기제품·자동차등의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건설부는 건물의 에너지원단위관리를 강화하고, 절약기법의 다양화등을 통해 건설부문 에너지절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대중교통중심체제를 확립하고, 에너지절약형 화물수송체제를 구축하며, 기관차 및 객차설비의 에너지절약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기술 지원현황과 대책보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기술현황은 절약형 공정개선등 기술의 고도화가 요망되는 전문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촉진과 국산화유도, 신기술의 시범보급, 이미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原油연지급수입기간 90일로단축 수입보증금적립은 3개월 유예

정부는 원유의 延支給 輸入기간을

30일 단축하는 대신 수입보증금 적립유예초치를 3개월간 연장,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시행기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들의 수입보증금 적립은

원화 이외의 외화로도 가능토록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연지급수입기간 단축초치때 제외됐던 原油·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종전 120일에서 90일로 30일 단축,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油價상승과 수입관세 인상등으로 인한 물가양등과 업계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연지급수입에 따른 보증금적립초치를 3개월간 유예,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환은행들은 연지급수입시 대기업은 수입금액의 1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를 받고 있는 수입보증금을 지금까지 원화뿐만 아니라 美달러貨, 日本円貨등 지정외화로도 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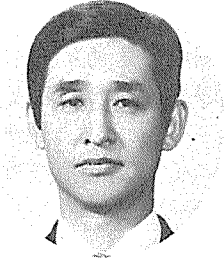
1월 국내나프타공급가격 인상 工場渡 0.93%... ㄹ당 84원29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0.93%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12월의 ㄹ당 83원 51전에서 84원 29전으로 78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12월의 ㄹ당 91원 86전에서 92원 72전으로 86전이 올랐다.

지난 12월중 국제나프타 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 가격으로 톤당 1백37달러36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1월의 1백35달러30센트보다 2달러6센트가 오른 것이

『石油의 정부비축 늘리겠다』 崔동자, 7월부터 無鉛휘발유 공급



정부는 올해에도 석유의 안정공급 기반확충을 위해 국제석유시장 사정을 활용, 원유의 안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비축을 늘려갈 계획이

다.

崔昌洛 동력자원부장은 지난 1월 5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低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활용에 계속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수입에너지의 안정도입 및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 하여 공급비탕을 건실하게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는 에너지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에너지정책은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본적 연관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의 향상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정부는 국내외에서 油田 개발을 꾸준히 펼쳐 나가며, 해외 자원개발수입의 적극 추진과 오는 2000년도까지 총에너지수요의 3% 공급 목표로 新·再生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에너지소비절약은 단순절약차원에서 공정관리개선등 원천적인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유사휘발유 유통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유제품의 품질을 제고시키며, 오는 7월부터는 환경오염방지책의 일환으로 無鉛휘발유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 가격에 연동 매달 日本 C&F 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 나프타공급가격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 / ℓ · \$ /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C&F기준)
1985. 11	171.14	0.15	252.65
12	175.46	2.53	242.56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0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4.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135.30
12	91.86	▲ 0.10	137.36
1987. 1	92.72	0.93	-

油公, 「그리이스」공장 시운전 32억원 투자, 연산 3천톤

油公의 「그리이스」 제조공장 시운전 가동식이 지난 1월 11일 울산공장내 시설 현장에서 최동일 공무생산담당 부공장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동시설은 250평의 대지에 총투자비 32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하여 5개월만에 완공 가동됐는데, 앞으로 연간 3천톤의 「그리이스」를 생산하게 된다.

油公, 부동액제품 KS표시획득 6개품목 14종으로 늘어

油公 유회유영업부에서는 86년초

올해 石油수요증가를 0.4% 전망 최종석유소비증가율은 7.3%될듯

올해 국내에너지수요구조는 LNG도입과 원자력사용증대에 따라 석유의존도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7년 국내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1차에너지소비는 연간 7.8% 증가의 6천7백58만TOE로 전망되며, 이중 석유는 0.4% 증가의 3천7백만9천TOE로 그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 반면 원자력증가율은 25.2%로 가장 높고, 지난해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LNG는 올해 1차에너지수요중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최종에너지소비는 연간 7.7%의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는 최종에너지 가운데 44.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지난 해의 급증세가 올해에는 다소 둔화되어 7.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LNG는 그 대부분이 발전용으로 투입됨으로써 최종에너지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에너지소비부문별로는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증가율이 5.8%로 가장 낮고, 수송부문이 1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지증가는 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해외의존도는 79.5%로 예상된다. 석유는 원유처리량기준으로 연간 2억1천6백98만8천배럴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LPG는 연간 84만5천톤 수입으로 86년에 비해 약 30% 정도의 높은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서내에 KS표시허가 획득 추진팀을 구성, 당사 유통유사업부문의 내연기관용 윤활유, 기어유, 냉동기유, 절삭유제, 부동액 등 5개 품목에 대한 KS 표시허가 획득작업을 추진하여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KS 표시허가를 획득한 바 있는데, 부동액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KS 표시허가를 획득하였다.

이번 부동액 KS 표시허가 획득으로 油公의 윤활유제품 KS 표시허가

획득품목은 6개품목에 14종으로 늘어났다.

油公, 입사 2년차 사원교육 자세 재정립기회 가져

油公은 입사 2년차 사원교육을 1985년도 입사 대졸이상 사원 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씩 2차에 걸쳐 경기도 용인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

인사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보다는 그간의 근무경험을 스스로 정리, 발표, 토의하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는데, 교육참가자들은 자신의 근무경험 반영, 향후 자기계발계획수립 등을 통해 회사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油公, 전반기 신입사원 채용 100명 2월초 부서배치

油公은 87년도 전반기 대졸 신입사원 100명을 지난 1월5일자로 채용했다.

인문사회계 45명, 이공계 55명으로 구성된 이들 신입사원들은 2월 9일까지 선경연수원, 본사, 공장등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마친 후 2월초 본사 및 공장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1월 30일부로 대학원출신 신입사원 13명도 채용할 예정이다.

油公,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39명 본사 및 공장에

油公은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 39명을 임시채용, 이들에게 산업체 현장경험과 학비조달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40일간 본사와 공장의 필요부서에 배치되어, 자료정리 등 업무보조를 한다.



油公, 美아코 케미컬과 합작 PO / SM 병산공장 건설

油公은 지난 1월 9일 美國 「아코 케미컬」 회사(ARCO CHEMICAL COMPANY)와 「프로필렌 옥사이드」(PO) 및 「스티렌 모노머」(SM)를 제조·판매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아코」의 PO/SM 병산기술을 이용, 총 투자비 1,300억원을 들여 울산에 세워질 PO/SM 병산공장의 생산능력은 PO 기준 연간 8만~10만톤, SM기준 18만~23만톤으로 예상되며, 완공시기는 1989년말이나 1990년초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억2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코 케미컬」 회사는 미국 아틀랜틱 리치필드(ATLANTIC RICHFIELD) 계열의 유화학사로 PO의 제조기술과 이 제품의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한 올해초부터 본격 실시될 문서의 축소화로 사무공간의 절약이 한층 가속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추진할 마이크로화 기기(jacket system)가 이미 설치를 끝낸 상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보관하고있는 문서들을 25배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어 이용도에 따라 사무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湖油, 내부통신망 팩시화 기존 텔렉스망을 대체

湖油는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5일부터 본사, 여천공장, 지방영업소, 저유소 및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텔렉스망을 보다 신속 간편한 팩시밀리 통신망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텔렉스에 의존하던 전문교신은 물론 문서, 설계도, 증빙서 등의 정보통신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

湖油, 문서정리운동 가속화 마이크로화 기기 설치

지속적인 문서정리운동을 추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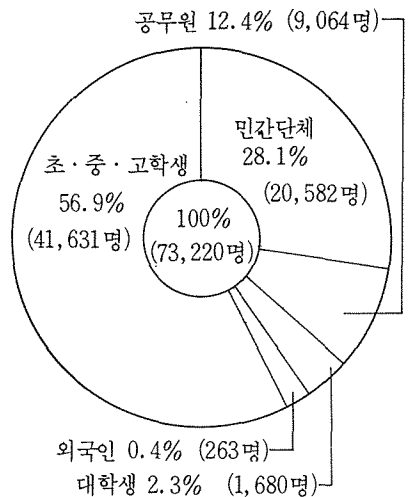
고 있는 湖油는 제2단계 문서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본사 사무실내 서류함의 약 22%가 제거되어 쾌적한 사무환경과 효율적인 문서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湖油, 공장방문객 연간 7만여명 전년대비 40여% 증가

86년 한해 동안 약 7만3천여명이 湖油 여천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층별로는 대학생을 포함한 각급학교 학생이 4만3천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민간단체가 3만여명을 기록하였으며, 월별로는 5월과 6월 그리고 10월에 가장 많은 인원이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년 5만2천여명보다 약 40.3%가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공장 산업시찰단 방문객들에게 회사의 이미지 부각과 간접적인 제품판매활동을 위하여 湖油공장 홍보홍보과에서는 87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湖油, 내부감사지침서 발간
일반감사부에서

湖油 일반감사부는 현장감사에서 습득한 감사기법과 외국의 각종 내부감사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내부감사실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국내 내부감사조직으로서는 최초로 알려진 이 내부감사 지침서는 일반감사부원의 내부감사실시 기준이 됨은 물론, 신입내부감사인의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湖油, 대전저유소 확장준공
중부권의 수요증대에 부응

湖油는 지난 12월 16일 李榮周전무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과 지역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저유소 확장 준공식을 가졌다.

대전 중부권의 활발한 개발과 함께 증가하는 석유류제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착공, 5개월만에 완공을 보게 된 이 확장공사는 총 공사비 3억6천만원이 투입되어 저장탱크 2기, 저유소, 사무동(2층) 등의 신축과 제품출하대 1기, 유회유 저장고 1동의 증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사의 완공으로 湖油는 중부지방에 저유황경유 및 유회유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湖油 여직원회 자선시장열어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에 김장을

湖油공장 여사원들로 구성된 새암분임조(조장: 김미정)에서는 지난12

월 15일부터 3일간 공장휴게실에서 제8회 자선잡화시장을 열었다.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 이웃돕기와 사내의 인보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새암분임조는 이번 잡화시장과 함께 찻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청소년 가정들에게 김장을 해주어 따뜻한 마음을 주위에 전하였다.

京仁, 제안제도 실시 · 포상
경비절감 및 사기진작에 도움

京仁에너지는 구랍 31일 중무식행사에서 정비부 임병운 사위의 터빈 밸브 작업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을 최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상장및 부상 50만원을, 그리고 생산부 등대분임조 “H-50-1 Inspection Door 개조” 등 6개 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京仁에너지는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회사의 업무개선을 통해 회사발전에 기여코져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상제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현상제안 실시후 훌륭한 제안들이 쇄도, 이중 채택된 제안들에 의한 총 경비절감이 연간 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

京仁,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37명 사무보조 및 주유서비스에

京仁에너지는 1월5일부터 2월27일까지 2개월 예정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37명을 채용하였다. 이들중 15명은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보조를 수행하며, 20명은 당사 계열 대리점의

주유소에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경향신문사의 아르바이트 은행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학생들을 채용 근무시킴으로서 학생들에 학비마련 기회 제공 및 실제산업현장에서의 경험 습득으로 건전한 사회관 고취 및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京仁, 품질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무궁화분임조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지난 12월 19일 교육장에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장내 50개 분임조 가운데 부서의 선발을 거쳐 7개팀이 출전한 이날 대회는 예년에 비해 기법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분임조간의 수준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경진대회를 마친 후 다과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입상팀 및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무궁화분임조(정비부)
열교환기 리튜빙 작업방법 개선
- ▲우수상: 왔다분임조(생산부)
보온용 스팀 절약
- ▲우수상: 생물분임조(발전부)
저부하 운전시 발전소 효율향상

京仁, 사우돕기 모금운동 전개
병고의 사우에 격려와 희망

京仁에너지는 지난 12월28일 백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산부의 김광선사우에게 사우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김광선사우는 76년도 월남 참전이 후 눈의 장애를 받아 그 후유증과 또 다른 눈이 백내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자 노조 주관 사우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본사와 공장의 전 임직원들도 적극 호응, 김광선사우의 쾌유를 염원하였다.

京仁, 정년퇴직사원 모임
京仁會 결성

京仁에너지는 지난 1월9일 정년 퇴직 사우모임인 경인회를 발족하였다. 운상천공장장의 제의로 정년퇴직 사우간의 친목도모와 현직 사우들간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며 평생 직장을 추구하는 영원한 경인인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결성하였는데 회사의 이러한 관심에 정년퇴직사우들은 경인인의 자부심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이 모임을 정년퇴직 사우들의 안식처로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雙龍, 신입사원 38명 채용
4 월말 부서배치 예정

雙龍精油는 지난 1월1 일자로 87년도 대졸신입사원 38명을 채용했다. 인문사회계 17명, 이공계 21 명으로 구성된 이들 신입사원들은 1월1 일 시무식행사에서 사령장을 받았으며, 4월 18일까지 본사 오리엔테이션, 공장현장실습, 그룹연수 및 컴퓨터교육을 거친뒤 4월말경 각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雙龍, 모범사원 표창 실시
87년 시무식 행사에서

雙龍精油는 지난 1월5일 87년도

雙龍, 공장소비조합 개장
복지증진 일환으로, 노조에서 운영

雙龍精油 공장사우들의 바램이던 구내매점이 회사지원으로 소비조합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9일 개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공장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송정수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개장테이프를 끊은 소비조합은 사우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가정용품과 기호품, 전자제품등 다양한 생활 용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상전표를 이용하여 모든 물품을 일반 수퍼나 연쇄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금구매의 경우나 외부인에게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인근주민과의 유대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무식행사에서 모범사원 및 근무공로사원을 표창했다.

이날 李承源사장의 신년사에 앞서 진행된 표창에서 모범사원 20명 (본사 8명, 인천저유소 1명, 공장 11명) 과 근무공로사원 4명(본사 2명, 공장 2명) 총 24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됐다.

雙龍, 연말연시 비상근무체제
안전조업 및 경계태세에 만전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조업, 대고객 편익제공 및 경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12일동안을 '근무태세 강화기간' 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동기간중 주요부서 간부들을 중심으로한 비상대기조를 운영하고 당직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부두 근무와 시설관리등 감독기능을 강화시켜 운

행했다.

雙龍, 본사가족협의회 개최
86실적보고 및 현안문제 토의

雙龍精油 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12층 영업회의실에서 4/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86년도 경영실적 및 사우회 사업실적등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근로자측 위원이 제의한 제반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極東, 송년행사 가져
모범사원 표창도

極東石油는 구랍 24일 회사강당에서 본사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파티를 갖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사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부산공장 및 대산공장 건설 사무소에서도 전 임직원 참석하에 별도의 송년파티를 실시하였다.

極東, 아르바이트학생 채용
12명에 사회경험의 기회제공

極東石油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학생 12명을 임시 채용하여 이들에게 산업체현장경험과 학비조달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12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본사의 필요부서에 배치되어 자료정리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極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공장 여직원회 빛무리회

極東石油 부산공장은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공장회의실에서 공장 여직원의 모임인 빛무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1백 2십만원 을 남구청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極東, 평화의담 성금기탁
1억원 한국일보사에

極東石油은 지난 1월 14일 평화의담건설 성금으로 1억원을 한국일보사에 기탁했다.

석유협회 사무식

劉부회장, 자기성찰·자기혁신강조

석유협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식을 가졌다.

劉時鍾부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협회가 7년의 연륜이 흐르는 동안에 외형적인 성장은 별로 없었으며,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과연 외부의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가 하는 회의와 갈등을 느끼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허한 자기성찰과 자기 혁신의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劉부회장은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

자기 직책을 훌륭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수행할 때 그 조직은 살고, 그렇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쇠퇴한다고 말하고, 이 직장에 대한 천직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韓國잡지 96年展」

「석유협회보」 등 전시

우리나라 잡지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잡지 90년전」이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교보문고 대장에서 열렸다.

한국잡지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친목회회보」(1896년 2월 15일, 大조선인 日本유학생친목회·계간)와 「大조선독립협회회보」(1896년 11월 30일 大조선독립협회·격주간)가 발간된지 90년되는 해를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189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행된 1천 5백여점의 잡지가 전시되었다.

석유협회는 이번 잡지전시회에 「석유협회보」(월간)을 출품·전시했다.

||||| □ 新刊案内 □ |||||

石油製品の規格과品質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편저 -